

Global Strategy

한고비만 넘기자. 7월의 환호가 코앞이다

Global Strategist 문남중
namjong.moon@daishi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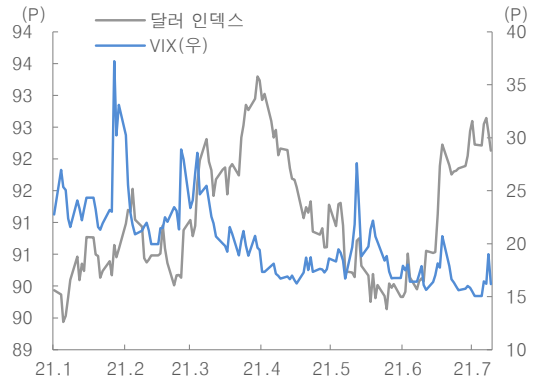
- 지난 8일 미국 증시의 변동성 확대는 증시가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없는 상황에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시에 대한 확신이 낮아진 투자자 심리를 대변해주는 계기였다. 미국 증시보다는 미국 증시만 쳐다보고 있는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의 우왕좌왕하는 투자자 심리가 더 눈에 띄었다는 점에서 남은 7월 한달간 대기중인 이벤트에 따라 지난 8일처럼 흔들리는 투자심리가 반복될 여지가 있다.
- 9일 미국 증시는 하루만에 1%대 상승마감해 안도감을 높였다. VIX 지수도 8일 19.00P에서 9일 16.18P로 내려와 향후 불확실성을 낮추는 듯 하지만, 이번주는 7월 증시 또는 하반기 증시 향배를 결정할 중요 변수가 대기중이라는 점에서 증시가 고비를 잘 넘기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 주인공은 13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CPI)로 가깝게는 경계감을 높이는 요인, 멀게는 하반기 증시 향배를 결정할 트리거가 될 것이다.
- 올해 상반기 증시 불안을 가져온 원인은 물가 급등과 이로인한 금리상승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코로나19 위기과정에서 큰 폭 감소한 기저효과로 물가 레벨이 우려를 자아낼 만큼 단기간 높아졌다. 지난해 5월, 미국의 소비자물가(CPI)가 최저점이었다고 9월까지 증가세가 이어졌다는 점에서 13일 발표되는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CPI)부터 9월 소비자물가(CPI) 전년동월대비 증가율이 낮아지는게 정상적인 경로이다.
- 11일 기준,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CPI) 예상치는 전년동월대비 4.9% 증가로 전월치(5.0% YoY)를 하회하고 있다. 전월치를 하회하는 예상치가 유지될 경우, 동지표 발표후 증시는 경계감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할 것이다(시나리오1). 하지만 반대의 경우로 예상치를 상회해 전월치를 넘어설 경우 물가 불안이 커지면서 6월 FOMC 의사록에서 확인된 정책변경에 신중을 기하자는 언급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이른 테이퍼링을 걱정하는 판세로 전환될 것이다(시나리오2). 이는 하반기 동안 증시의 노이즈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불편함으로 지속될 것이다.
-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CPI)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은 생겼지만 언급한 2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시나리오1)을 예상하는 만큼 가깝게는 7월 증시는 다시 상승하는 모습으로 전개될 것이다. 한고비를 넘긴 만큼 7월 증시의 환호는 커질 것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5~2019년 5년동안 S&P500지수의 월별 수익률 중 7월 수익률(2.5%)은 연간으로 가장 높았다. 미국의 6월 소비자물가(CPI) 발표를 앞둔 경계감이 높아지는 시점을 비중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섹터: IT, 헬스케어, 신재생에너지, 테마: 친환경-저탄소, 전기차, 수소차, 인프라-차세대통신, 보건의료)중심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림 1. 미국 증시(S&P500, NASDAQ, DOW)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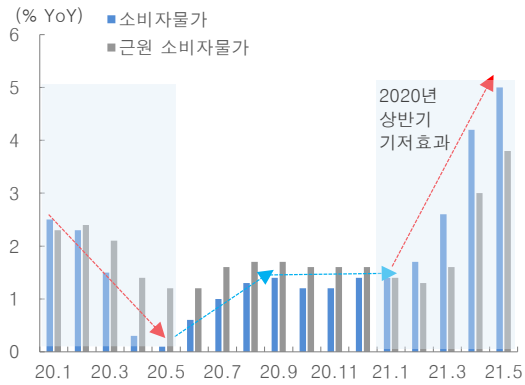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2. VIX 지수, 달러 인덱스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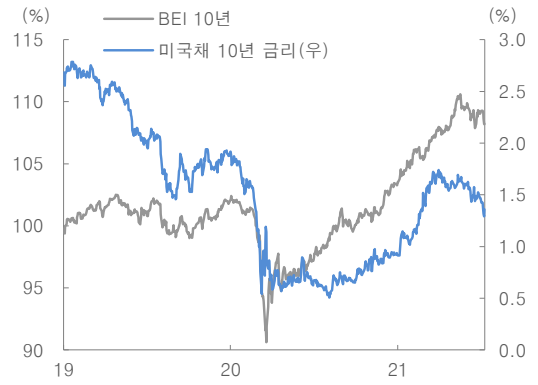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3. 미국 CPI, Core CPI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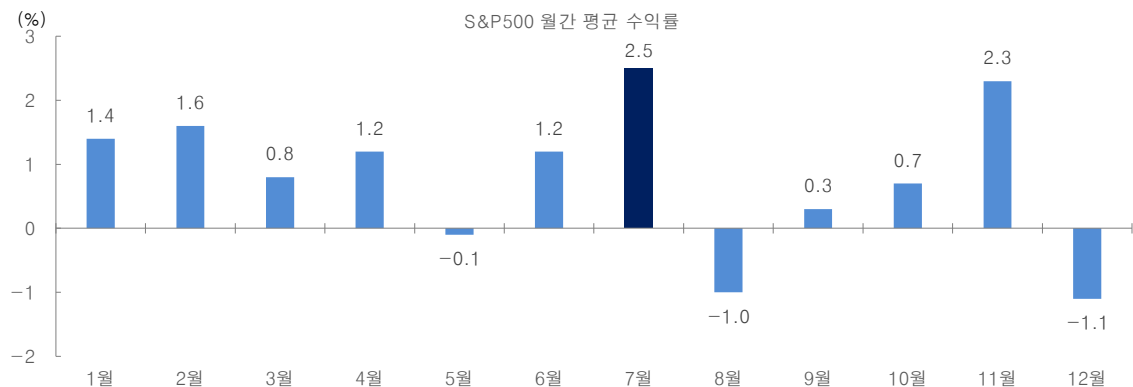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4. 미국채 10년물 금리, BEI 10년 추이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그림 5. 과거(2015~2019년) S&P500 월별 수익률. 7월 수익률이 연간으로 가장 높은 시점. 7월은 상승장



자료: Bloomber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금융투자업규정 4-20조 1항5호사목에 따라 작성일 현재 사전고지와 관련한 사항이 없으며,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당사의 금융투자분석사는 본 자료의 작성과 관련하여 외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작성자: 문남중)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Research Center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동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